

노인의 관점에서 본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연구 -

The Age-friendly Degree of Neighborhood Environment in aspects of the Aged

- A Comparative Study of Urban Area and Rural Area -

Author 오찬욱 Oh, Chan-Ohk / 정희원, 인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김수영 Kim, Soo-Young / 정희원,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동진 Gang, Dong-Jin / 정희원,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Abstract As the aging society is globally increasing, the guide for the aged-friendly city is suggested by WHO and many cities are preparing to meet with it. The base of this guide for an age-friendly city is an active aging. This study examined how degree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is age-friendly from older persons' standpoint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old persons who aged more than 65 years, 117 persons in an urban area and 110 ones in a rural area. The age-friendly degree of neighborhood environment was examined from two aspects. One is how close 12 neighborhood facilities were from the elderly's houses. Another one is how degree the elderly were considered in 4 areas: pedestrian road, traffic, the amount of housing for the elderly, and space layouts of their houses.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related neighborhood facilities in urban area were closer located to old persons' houses than in rural area, except the senior center. Second, in case of the age-friendly degree of their neighborhood environments, the space layout of house was the highest, and then traffic, pedestrian road, and the amount of housing for the elderly, in order. The consideration degree of wheelchair users was the lowest. Third, the age-friendly degree of pedestrian road, traffic, and room layout of house in rural area were higher than in urban area. However, the amount of housing for the elderly in urban area was higher than in rural area.

Keywords 노인친화적, 도시와 농촌, 마을, 근린생활시설
Age-friendly, Urban and Rural, Neighborhood Environment, Neighborhood Faciliti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대처해나가는 것은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노인공동체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이 사용하는 물리적 환경이 노인 친화적이어야 한다. 노인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노인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고령

화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07년 WHO는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를 위한 노인친화도시 지침을 제시한 후 2009년 WHO 국제노인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3년 6월 현재 21개국 138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인친화도시 지침은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 중에는 외부환경과 건물, 교통, 주거환경 같은 물리적인 환경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서비스 관련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고령친화도시 지침은 WHO 국제노인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이 준수하여야

* 본 논문은 2012년 정부재원(교육부 한국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3A2033314)

하는 지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특성에 따라 어떤 측면을 더 중요시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지역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환경이 어느 정도 노인 친화적인지를 노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어떤 측면을 더 노인 친화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이와 인접해 있는 김해시의 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물리적 환경이 어느 정도 노인친화적인지를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는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12개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와 동네의 보행도로, 교통환경, 노인주택의 제공정도, 주택 내부구조 및 설비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된 총 26개 요소들의 노인에 대한 배려정도를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2. 노인친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노인친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노인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친화적인 환경조성의 필요성과 방향 내지 지표를 제시하여 전세계의 많은 도시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해준 UN과 WHO의 방향과 지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된 고령친화도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리적 환경 즉, 외부환경과 교통, 주택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고령화 총회에서 발표된 UN의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¹⁾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할 정책과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인을 연금수급자나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존재 즉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활기찬 노화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은 ‘노인과 발전’,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의 3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 8개, 6개, 4개씩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의 방향에 주택과 주거환경 및 교통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첫째, 노인 개인의 선호와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aging in place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 둘째, 특히 장애노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촉진하도록 주택 및 환경디자인을 개선하는 것, 셋째,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부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유용성을 개선하는 것의 3가지 목적이 포함된다.

2007년 WHO²⁾는 활기찬 노화를 위하여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노인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8개 영역은 실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사회적 참여, 존중과 사회적 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이다. 이 가이드는 물리적 환경 36개 항목, 사회경제적 환경 25개 항목, 지역사회 환경 23개 항목으로 총 8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에는 실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의 3개 영역이 포함된다.

2008년에는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³⁾가 진행되었다. 지표는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영역을 기초로 하고 UN의 노인을 위한 원칙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5개 분야, 10개 영역, 49개 요소로 구성하였다. 5개 분야는 기본적 욕구, 물리적 환경, 사회적 서비스, 사회참여, 가치 및 정책기반이며 10개 영역에는 존경과 배려, 기초생활, 안전, 도시환경, 교통서비스와 시설, 사회참여, 취업과 교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건강, 의료, 고령친화적 정책기반이 포함된다. 요소는 기본적 욕구 10개, 물리적 환경 12개, 사회적 서비스 9개, 사회참여 10개, 가치 및 정책기반 8개 등 총 49개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영역은 보행 및 도로환경에 6개 요소와 교통서비스와 시설에 6개 요소가 포함되어 총 12개 요소이다.

부산시 고령친화도 지표⁴⁾는 10개 영역에 5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하위영역은 존중과 사회통합(8개), 야외공간과 건물(7개), 교통(6개), 주택(4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5개), 시민참여와 고용(5개), 사회참여(5개), 지역사회지원과 의료서비스(11개), 안전(5개), 고령친화정책기반(3개)이다. 이 지표는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 조성을 위한 점검항목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부산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번역의 적절성과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고령친화 관련 전문가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을 설문조사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실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려

2)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007

3) 김선자·김경혜,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2008

4) 이민홍·이재정, 부산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부산복지개발원, 2011

1) UN,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2002

운 문장이나 단어를 조사하고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그 결과 WHO의 8개 영역에 안전과 고령친화정책기반의 2개 영역이 추가되어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부산시의 지표 중에서 물리적 환경에 속하는 영역은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택의 3개 영역으로 총 17개 문항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도 과천시를 대상으로 WHO 가이드를 점검수단으로 활용하여 고령친화 도시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도 8개 영역으로 구분된 총 61개 항목을 갖고 조사하였는데 현장조사영역 30개와 정책분석 31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영역은 현장조사영역에 포함되며 외부공간 및 빌딩 10개, 주택 4개, 교통 7개로 총 21개 항목이다.

지자체 차원은 아니지만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존 도시의 고령친화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를 개발한 연구⁶⁾가 있다. 이 연구는 WHO에서 제시한 84개 항목 중 노인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 4명의 의견을 토대로 34개 항목을 제거하고 총 8개 영역의 50개 항목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위하여 노인관련 전문가 집단인 노인관련시설 및 단체의 노인전문가와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최종 8개 영역, 총 46개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그 다음 대구지역 노인 411명을 대상으로 노인친화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분석을 하여 최종 10가지 영역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를 개발하였다. 10가지 영역은 공원시설(2개), 안전시설(4개), 교통시설(3개), 주거시설(2개), 참여환경(3개), 사회포용(3개), 일자리(2개), 의사소통(3개), 보건(3개), 사회복지(3개)이다. 이중 물리적 환경은 공원시설과 안전시설, 교통시설, 주거시설로 11개 항목이다.

한편 특정지역이 고령친화적인 도시나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⁷⁾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고령친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2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AHP조사를 실시하여 물리적 환경, 건강과 보호, 사회통합과 소음, 사회참여의 4개 상위영역과 9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 총 29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여기에서 물리적인 환경영역은 교통과 주거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 3개씩 총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노인친화도시 지표는

- 5) 김영혜·남효정·고주희,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 6) 지은구·이원주·김민주,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 계명대, 29, 3, pp.459-489
- 7) 김수영·장수지·오찬욱·최성희, 고령친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표 개발, 한국노년학, 34,3, 2014, p.556

WHO의 가이드를 토대로 각 지역특성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지표에서 물리적인 환경은 WHO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대부분 외부환경과 건물, 교통, 주거환경과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표의 개수는 6개에서 36개로 모두 달랐다.

3. 조사방법

3.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부산과 김해시 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도시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2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2개 지역 중 조사가 가능한 사회복지관과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지역 및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사상구, 사하구, 남구, 해운대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관과 마을 만들기 단체, 공동체 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김해지역의 경우는 상동면과 한림면의 마을 만들기 단체와 대동면 수안리와 월촌리 마을에서 조사하였다.

3.2. 조사방법

본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조사원 6인이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담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부산지역 노인 117명과 김해지역 노인 110명이 조사에 응하여 총 22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하였다.

3.3. 조사내용

본 연구는 2014년 실시한 ‘고령화 지표측정에 관한 조사’⁸⁾의 조사내용 중 물리적 환경에 해당되는 내용과 노인특성 항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와 거주동네의 보행도로, 교통환경, 주거환경의 노인친화도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린생활의 근접도를 포함시킨 것은 선행연구⁹⁾에서 주거와 관련된 지표로 ‘근거리내에 복지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12개의 근린생활시설은 선행연구¹⁰⁾를 토대로 노인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종합

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로 물리적 환경, 건강과 돌봄,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9) Ibid., p.571

10) 오찬욱·김수영·장수지,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 디자인 지표개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3,2, 2014, p.34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이용하며 필요로 하는 근린환경으로 지정한 7개 영역 중 상업공간, 문화교육공간, 건강의료공간, 공원녹지공간의 4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들 중에서

하여 선정된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 조사는 각 시설의 위치를 자신의 주택을 기준으로 도보거리내, 자동차로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상의 4단계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노인 친화도는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친화도시 가이드 중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영역인 외부환경과 건물, 교통, 주거환경영역에 해당하는 36개 항목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노인전문가 3인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하여 보행도로 4개 항목, 교통 9개 항목, 노인주택의 제공정도 4개 항목, 주택내부구조 및 설비 9개 항목의 총 2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노인특성으로는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생활수준, 현재 경제활동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주택유형, 주택소유상태, 주택 평수, 거주하는 지역과 동네 및 주택 각각에서의 거주기간 등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SPSS Ver. 21을 사용하여 빈도, 퍼센트, 평균, t검증¹¹⁾ 분석을 하였다.

4. 노인의 관점에서 본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

4.1.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두 지역 모두 여자노인이 많았으며 그 정도는 김해지역은 64.5%, 부산지역은 73.9%로 부산지역이 더 많았다. 연령은 부산지역 노인은 60대 후반이 27.7%, 70대 후반이 21.8%로 많았으나 김해지역 노인은 60대 초반이 31.8%, 60대 후반이 28.2%로 많아 김해지역 노인이 부산지역 노인보다 젊은 편이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부산지역 노인은 고등학교 졸업이 32.2%, 중졸이 24.6%, 초졸이 23.7%인 반면, 김해지역 노인은 초졸이 29.1%, 중졸이 28.2%, 무학이 25.5%로 부산지역 노인보다 낮은 편이었다.

생활수준은 부산과 김해지역 노인 모두 하가 36.4%와 41.8%, 중/중상이 33.9%와 35.5%, 중하가 29.7%와 22.7%의 순으로 지역별로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순위는 동일하여 하와 중/중상인 노인이 많았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부산노인은 28.0%, 김해노인은 39.1%로 김해노인이 더 많아 농촌지역 노인은 농사일 등으로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 경우는 부산지역 노인은 32.8%이고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노인특성	구분	지역		계
		부산 f(%)	김해 f(%)	
성별	남자	31(26.1)	39(35.5)	70(30.6)
	여자	88(73.9)	71(64.5)	159(69.4)
	계	119(100.0)	110(100.0)	229(100.0)
연령	60대 초반	22(18.5)	35(31.8)	57(24.9)
	60대 후반	33(27.7)	31(28.2)	64(27.9)
	70대 초반	22(18.5)	14(12.7)	36(15.7)
	70대 후반	26(21.8)	15(13.6)	41(17.9)
	80대 이상	16(13.4)	15(13.6)	31(13.5)
	계	119(100.0)	110(100.0)	229(100.0)
	평균 (s.d.)	71.4세 (7.960)	69.7세 (7.835)	70.56세 (7.930)
최종학력	무학	11(9.3)	28(25.5)	39(17.1)
	초졸	28(23.7)	32(29.1)	60(26.3)
	중졸	29(24.6)	31(28.2)	60(26.3)
	고졸	38(32.2)	18(16.4)	56(24.6)
	대졸 이상	12(10.2)	1(.9)	13(5.7)
	계	118(100.0)	110(100.0)	228(100.0)
생활수준	하	43(36.4)	46(41.8)	89(39.0)
	중하	35(29.7)	25(22.7)	60(26.3)
	중과 중상	40(33.9)	39(35.5)	79(34.6)
	계	118(100.0)	110(100.0)	228(100.0)
현재 경제활동 여부	현재 일하고 있음	33(28.0)	43(39.1)	76(33.3)
	일하고 있지 않음	85(72.0)	67(60.9)	152(66.7)
	계	118(100.0)	110(100.0)	228(100.0)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39(32.8)	36(32.7)	75(32.8)
	보통	59(49.6)	39(35.5)	98(42.8)
	건강하다	21(17.6)	35(31.8)	56(24.5)
	계	119(100.0)	110(100.0)	229(100.0)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마을버스	74(62.2)	68(61.8)	142(62.0)
	시내버스	96(80.7)	48(43.6)	144(62.9)
	전철	49(41.2)	1(.9)	50(21.8)
	택시	20(16.8)	27(24.5)	47(20.5)
	자가용	9(7.6)	37(33.6)	46(20.1)
	기타	7(5.9)	2(1.8)	9(3.9)
계	119(100.0)	110(100.0)	229(100.0)	

* 다중응답한 경우임.

김해지역 노인은 32.7%로 동일하였으나 건강하다고 한 경우는 부산 노인은 17.6%인데 반하여 김해 노인은 31.8%로 훨씬 많았다. 이와 같이 김해 노인 중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이 많은 것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일 뿐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소득이 있다는 것이 노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노인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부산지역 노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80.7%, 마을버스가 62.2%로 많았으며 전철도 41.2%나 되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해노인은 마을버

본 조사의 목적에 맞는 12개의 근린생활시설을 선정하였다.

11)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 및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에 대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61.8%,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43.6%로 부산 노인처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 정도가 낮았으며 대신 자가용(33.6%)과 택시(24.5%)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버스의 노선과 운행 빈도가 도시보다 낮아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지며 따라서 대신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여 부산지역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38.5%와 39.3%로 비슷한 반면 김해지역은 단독주택이 94.5%로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소유상태도 부산은 자가인 경우가 71.4%인 반면 김해지역은 97.2%로 차이를 보였다. 주택평수는 부산지역 노인은 10평대가 69.2%이고 20평대가 23.1%로 92.3%가 30평대 미만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김해지역 노인은 40평대 이상이 37.3%, 20평대가 33.6%, 30평대가 23.6%로 부산보다 더 넓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표 2> 노인거주 주택의 특성

주택특성	구분	지역		계
		부산 f(%)	김해 f(%)	
주택유형	단독주택	45(38.5)	104(94.5)	149(65.6)
	아파트	46(39.3)	3(2.7)	49(21.6)
	연립주택/빌라	6(5.1)	2(1.8)	8(3.5)
	다세대/다가구주택	20(17.1)	1(.9)	21(9.3)
	계	117(100.0)	110(100.0)	227(100.0)
주택소유상태	자가	60(71.4)	106(97.2)	166(86.0)
	임차	24(28.6)	3(2.8)	27(14.0)
	계	84(100.0)	109(100.0)	193(100.0)
주택평수	10평대	81(69.2)	6(5.5)	87(38.3)
	20평대	27(23.1)	37(33.6)	64(28.2)
	30평대	9(7.7)	26(23.6)	35(15.4)
	40평대 이상	0(0.0)	41(37.3)	41(18.1)
	계	117(100.0)	110(100.0)	227(100.0)

또한 이들 노인들은 <표 3>과 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동네 및 주택에서 아주 오랜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김해지역이 부산지역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 노인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평균 39년(부산지역: 36.7년, 김해지역: 42.1년) 거주하고 있었으며 77%의 노인이 현재의 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평균 32년(부산지역: 26.5년, 김해지역: 37.8년) 거주하고 있었으며 56%의 노인이 현재의 동네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며 10년 미만 현재의 동네에 거주하는 노인은 16%였다. 또한 현재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28년(부산지역: 22.4년, 김해지역: 34.3년)

이었으며 10년-30년 미만인 경우가 60%가 되어 동일한 동네에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노인 거주 지역과 동네 및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거주기간		지역			동네			주택		
		부산	김해	계	부산	김해	계	부산	김해	계
10년 미만	f	3	4	7	9	7	16	20	7	27
	%	2.6	3.6	3.1	7.7	6.4	7.0	17.1	6.4	11.9
10년-20년 미만	f	9	9	18	23	16	39	25	21	46
	%	7.7	8.2	7.9	19.7	14.5	17.2	21.4	19.1	20.3
20년-30년 미만	f	13	14	27	29	16	45	32	17	49
	%	11.1	12.7	11.9	24.8	14.5	19.8	27.4	15.5	21.6
30년-40년 미만	f	36	19	55	30	16	46	23	19	42
	%	30.8	17.3	24.2	25.6	14.5	20.3	19.7	17.3	18.5
40년-50년 미만	f	31	19	50	17	16	33	9	16	25
	%	26.5	17.3	22.0	14.5	14.5	14.5	7.7	14.5	11.0
50년 이상	f	25	45	70	9	39	48	8	30	38
	%	21.4	40.9	30.8	7.7	35.5	21.1	6.8	27.3	16.7
계	f	117	110	227	117	110	227	117	110	22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s.d.)		36.7년 (14.78)	42.1년 (19.99)	39.3년 (17.67)	26.5년 (13.03)	37.8년 (21.03)	32.0년 (18.23)	22.4년 (13.67)	34.3년 (20.02)	28.2년 (18.02)

4.2. 노인 관점에서 본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

노인이 거주하는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는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와 동네의 보행도로, 교통, 노인주택의 제공정도, 주택내부구조 및 설비의 노인에 대한 배려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근린생활시설 12개를 제시하고 각 시설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도보 거리 내', '자동차로 10분 이내', '자동차로 20분 이내', '자동차로 30분 이상'의 4개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 및 <그림 1>과 같다.

12개의 근린생활시설 중 경로당의 근접도가 1.05점으로 노인 거주주택에서 가장 근접해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은 1.78점, 식료품점이나 편의점 등은 1.77점, 은행 등 금융시설은 1.71점, 종교시설은 1.74점으로 비교적 근접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응급실은 2.96점, 노인 요양시설/병원은 2.58점, 병·의원은 2.96점으로 비교적 멀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주간보호센터는 3.00점으로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2개 시설의 근접도는 '보도거리 내'인 시설이 100%의 노인이 지적한 시설도 있는 등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로 30분 이상'인 시설은 70%의 노인이 지적한 시설이 있는 등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자동차로 10분 이내'와 '자동차로 20분 이내'라고 한 시설은 모두 50%이하의 노인이 지적하여 적은 편이었다.

① 도보거리 내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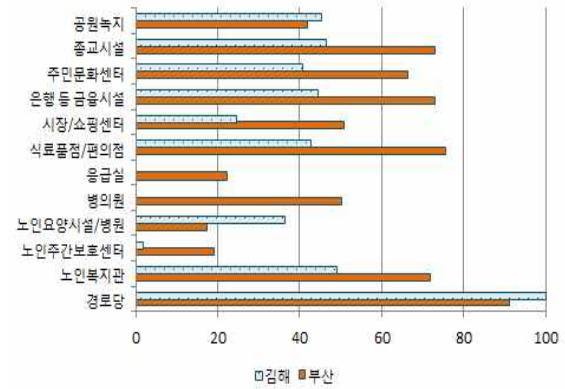
조사대상 노인의 50% 이상이 도보거리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부산지역은 8개, 김해지역은 1개였으며 이중 1개 시설이 중복되어 총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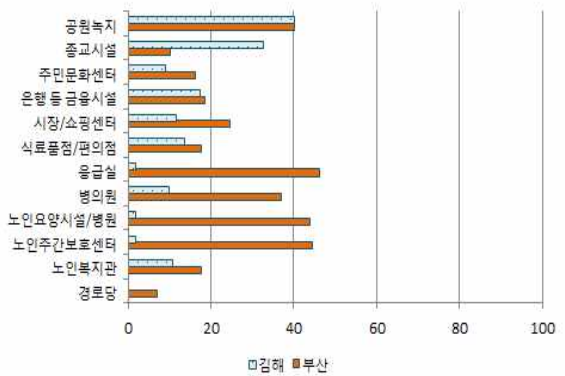
<표 4> 지역별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

근린생활 시설	지역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버스/ 자동차로 10분 이내 거리	버스/ 자동차로 20분 이내 거리	버스/ 자동차로 30분 이상 거리	계	M ^a (s.d.)
		f(%)	f(%)	f(%)	f(%)		
경로당	부산	105(91.3)	8(7.0)	2(1.7)	0(0.0)	115(100.0)	1.05 (0.262)
	김해	110(100.0)	0(0.0)	0(0.0)	0(0.0)	110(100.0)	
	계	215(95.6)	8(3.6)	2(.9)	0(0.0)	225(100.0)	
노인/사회 복지관	부산	85(72.0)	21(17.8)	9(7.6)	3(2.5)	118(100.0)	1.78 (1.110)
	김해	54(49.1)	12(10.9)	15(13.6)	29(26.4)	110(100.0)	
	계	139(61.0)	33(14.5)	24(10.5)	32(14.0)	228(100.0)	
노인주간 보호센터	부산	21(19.1)	49(44.5)	20(18.2)	20(18.2)	110(100.0)	3.00 (1.045)
	김해	2(1.8)	2(1.8)	30(27.3)	76(69.1)	110(100.0)	
	계	23(10.5)	51(23.2)	50(22.7)	96(43.6)	220(100.0)	
노인요양 시설/병원	부산	20(17.5)	50(43.9)	26(22.8)	18(15.8)	114(100.0)	2.58 (1.221)
	김해	40(36.4)	2(1.8)	7(6.4)	61(55.5)	110(100.0)	
	계	60(26.8)	52(23.2)	33(14.7)	79(35.3)	224(100.0)	
병의원	부산	60(50.4)	44(37.0)	6(5.0)	9(7.6)	119(100.0)	2.56 (1.196)
	김해	0(0.0)	11(10.0)	33(30.0)	66(60.0)	110(100.0)	
	계	60(26.2)	55(24.0)	39(17.0)	75(32.8)	229(100.0)	
응급실	부산	26(22.2)	54(46.2)	16(13.7)	21(17.9)	117(100.0)	2.96 (1.072)
	김해	0(0.0)	2(1.8)	29(26.4)	79(71.8)	110(100.0)	
	계	26(11.5)	56(24.7)	45(19.8)	100(44.1)	227(100.0)	
식품점/ 편의점	부산	90(75.6)	21(17.6)	3(2.5)	5(4.2)	119(100.0)	1.77 (1.078)
	김해	47(42.7)	15(13.6)	25(22.7)	23(20.9)	110(100.0)	
	계	137(59.8)	36(15.7)	28(12.2)	28(12.2)	229(100.0)	
시장/쇼핑 센터	부산	60(50.8)	29(24.6)	12(10.2)	17(14.4)	118(100.0)	2.31 (1.225)
	김해	27(24.5)	13(11.8)	28(25.5)	42(38.2)	110(100.0)	
	계	87(38.2)	42(18.4)	40(17.5)	59(25.9)	228(100.0)	
은행 등 금융시설	부산	87(73.1)	22(18.5)	7(5.9)	3(2.5)	119(100.0)	1.71 (0.989)
	김해	49(44.5)	19(17.3)	27(24.5)	15(13.6)	110(100.0)	
	계	136(59.4)	41(17.9)	34(14.8)	18(7.9)	229(100.0)	
주민· 문화센터/ 도서관	부산	77(66.4)	19(16.4)	16(13.8)	4(3.4)	116(100.0)	1.96 (1.175)
	김해	45(40.9)	10(9.1)	21(19.1)	34(30.9)	110(100.0)	
	계	122(54.0)	29(12.8)	37(16.4)	38(16.8)	226(100.0)	
종교시설	부산	86(72.9)	12(10.2)	2(1.7)	18(15.3)	118(100.0)	1.74 (1.083)
	김해	51(46.4)	36(32.7)	7(6.4)	16(14.5)	110(100.0)	
	계	137(60.1)	48(21.1)	9(3.9)	34(14.9)	228(100.0)	
공원 녹지 산책로	부산	50(42.0)	48(40.3)	14(11.8)	7(5.9)	119(100.0)	2.17 (1.251)
	김해	50(45.5)	3(2.7)	2(1.8)	55(50.0)	110(100.0)	
	계	100(43.7)	51(22.3)	16(7.0)	62(27.1)	22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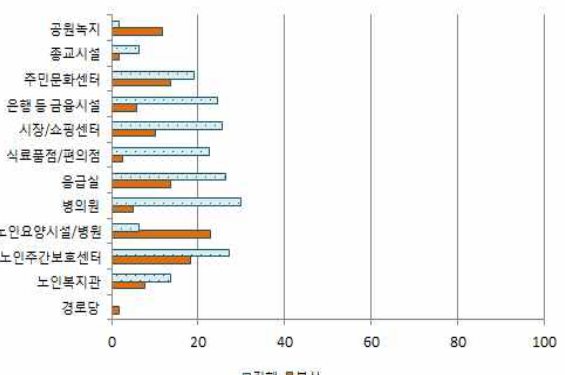
^a: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1,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10분 이내로 가는 거리 =2, 20분 이내로 가는 거리=3, 30분 이상 가는 거리=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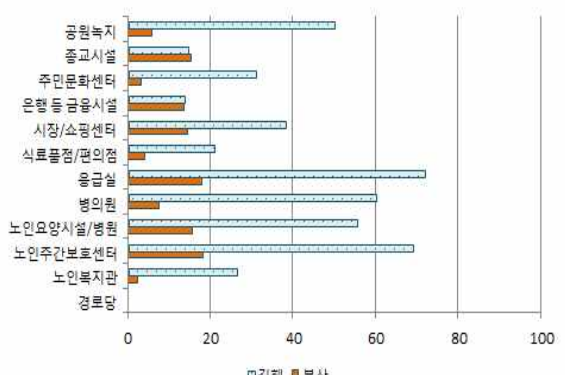
도보거리 내 위치로 인지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10분 이내거리 위치로 인지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20분 이내거리 위치로 인지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30분 이내거리 위치로 인지된 근린생활시설

<그림 1> 지역별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의 근접성

시설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경로당(91.3%), 식료품점/편의점(75.6%), 은행 등 금융시설(73.1%), 종교시설(72.9%), 노인복지관(72.0%), 시장/쇼핑센터(50.8%), 병·의원(50.4%), 공원·녹지(42.0%)의 순으로 많았다. 김해지역의 경우는 경로당(100%)만이 50%를 넘었으며 그 다음은 40%대로 노인복지관(49.1%), 종교시설(46.4%), 공원·녹지(45.5%), 은행 등 금융시설(44.5%), 식료품점/편의점(42.7%), 주민문화센터(40.9%)의 순이었다. 즉 부산지역이 김해지역보다 도보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근린생활시설의 제공 측면에서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잘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② 자동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들은 지역별로 50% 이하의 노인들이 지정한 시설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40% 이상의 노인이 지정한 시설은 부산만이 4개였으며 30-40%의 노인이 지정한 시설은 부산과 김해지역에 각각 1개씩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노인의 30% 이상이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부산지역의 경우는 응급실(46.2%), 노인주간보호센터(44.5%), 노인요양시설/병원(43.9%), 공원녹지(40.3%), 병·의원(37.0%)이었으며 김해지역의 경우는 종교시설(32.7%) 뿐이었다.

③ 자동차로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들 모두는 지역별로 노인의 30% 미만이 지정한 시설들이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20% 이상의 노인이 지정한 근린생활시설들을 보면, 부산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22.8%) 한 개 시설뿐이며, 김해의 경우는 병·의원(30.0%), 노인주간보호센터(27.3%), 응급실(26.4%), 시장/쇼핑센터(25.5%), 은행 등 금융시설(24.5%), 식료품점/편의점(22.7%)의 6개 시설이었다.

④ 자동차로 30분 이상 거리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시설들로 노인의 40% 이상이 지정한 시설들은 모두 김해노인들이 지정한 시설들이었으며 부산 노인들은 모든 시설들을 20% 미만씩 지정하였다. 40% 이상의 김해 노인이 자동차로 30분 이상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시설은 응급실(71.8%), 노인주간보호센터(69.1%), 병·의원(60.0%), 노인요양시설/병원(55.5%), 공원·녹지(50.0%)의 5개 시설이었다.

⑤ 지역별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
 이러한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가 두 지역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 분석을 하여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2개 시설 중 경로당만이 김해지역이 부산지역보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1개 시설들은 모두 부산지역이 김해지역보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는 부산지역이 김해지역보다 노인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들이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노인친화적이지만, 농촌지역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들이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노인의 경우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아 동네마다 노인에게 필요한 근린생활시설들을 모두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필요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자동차로 30분 이상되는 거리에 위치하게 되면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 어렵게 되므로 한 동네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몇 개의 동네들을 묶어서 한 영역으로 보고 가능한 이 영역 내에 모든 시설들이 위치하도록 계획한다면 접근성과 사용성이 증가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표 5> 지역별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의 근접도

근린생활시설	지역	N	M ^b	t값
경로당	부산	115	1.10	3.111***
	김해	110	1.00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부산	118	1.41	-5.440***
	김해	110	2.17	
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	110	2.35	-11.513***
	김해	110	3.64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병원	부산	114	2.37	-2.721**
	김해	110	2.81	
병·의원	부산	119	1.70	-17.316***
	김해	110	3.50	
응급실	부산	117	2.27	-13.664***
	김해	110	3.70	
식료품점이나 편의점 등	부산	119	1.35	-6.496***
	김해	110	2.22	
시장이나 쇼핑센터	부산	118	1.88	-5.860***
	김해	110	2.77	
은행 등 금융시설	부산	119	1.38	-5.567***
	김해	110	2.07	
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부산	116	1.54	-5.812***
	김해	110	2.40	
절,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부산	118	1.59	-2.089*
	김해	110	1.89	
공원, 녹지나 산책로	부산	119	1.82	-4.639***
	김해	110	2.56	

^b :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1,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10분 이내로 가는 거리 =2, 20분 이내로 가는 거리=3, 30분 이상 가는 거리=4

* p<.05 ** p<.01 ***p<.001

(2) 노인거주 동네환경의 영역별 노인친화도

조사대상 노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물리적 환경이 어느 정도 노인친화적인지를 보행도로, 교통, 노인주택의 제공 정도, 주택내부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① 동네 보행도로의 노인친화도

보행도로의 노인친화도는 <표 6>과 같이 보행도로 바닥의 편평한 정도와 통과 폭의 충분함, 벤치의 설치정도, 횡단보도 신호변경시간의 충분함의 4개 항목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지역의 보행도로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정도는 도시지역인 부산지역이 더 미흡하였다. 부산과 김해 두 지역의 보행도로 바닥의 편평함과 도로의 폭, 횡단보도의 신호변경 간격은 2.57점-2.71점으로 긍정적¹²⁾이었으나 잠시 앉을 수 있는 벤치의 설치정도는 2.29점으로 부정적이었다.

보행도로 바닥의 편평한 정도와 통과 폭, 벤치의 설치정도는 두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김해지역이 부산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해지역의 조사대상 지역은 비교적 평지인 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반면, 부산지역은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횡단보도의 신호변경 간격은 두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정도는 중간정도였다.

<표 6> 지역별 보행도로의 노인친화정도

보행도로의 노인친화도	지역	N	M ^b	M (s.d.)	t값
길을 걸을 때 길바닥이 편평하여 걸기가 편리하다	부산	118	2.46	2.66	-4.027***
	김해	110	2.88	(.821)	
보행로는 두 사람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폭이 넓다	부산	118	2.60	2.71	-2.101*
	김해	110	2.82	(.783)	
보행도로에는 걸다가 힘들 때 잠시 앉을 수 있는 벤치가 군데군데 있다	부산	119	2.16	2.29	-2.126*
	김해	110	2.44	(.981)	
횡단보도는 보통의 걸음걸이로 건너도 문제가 없다	부산	115	2.60	2.57	.493
	김해	110	2.55	(.821)	

b :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점
* p<.05 *** p<.001

② 동네 교통의 노인친화도

노인 거주 동네의 교통은 <표 7>과 같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의 의자와 손잡이 등의 이용편리성과 안전성 및 승하차시의 안전성, 버스정류장 내 의자의 제공정도, 버스 안내표시의 식별용이성, 교통신호 설치위치의 적절성의 9개 항목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부산과 김해지역 교통의 노인친화도는 2.55점- 2.89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내버스 내부의 이용편리성이 2.89점, 시내버스 내부의 안전성이 2.86점, 버스 정류장의 의자 설치정도가 2.85점, 마을버스 내부의 이용편리성이 2.82점, 마을버스 내부의 안전성이 2.76점, 시내버스의 승하차시의 안전성이 2.71점, 마을버스의 승하차시의 안전성이 2.68점, 버스 노선과 시간표 등 안내표시의 식별용이성이

2.62점, 교통신호의 운전자에 의한 식별용이성이 2.55점의 순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교통의 노인친화도가 두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하여 알아보았다. 교통의 노인친화도는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시내버스 내부의 이용편리성과 안전성, 마을버스 내부의 이용편리성과 안전성, 마을버스의 승하차시의 안전성은 김해지역이 부산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 노선과 시간표 등의 안내표시의 보기 쉬운 정도는 부산지역이 김해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운영할 때 특히 노인이 이용하게 될 경우 승하차시나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등 버스기사가 노인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므로 이용편리성과 안전성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함께 운영관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함을 암시해 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표 7> 지역별 교통환경의 노인친화도

교통환경의 노인친화도	지역	N	M ^b	M (s.d.)	t값
시내버스 내부(의자, 손잡이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부산	118	2.81	2.89	2.156*
	김해	110	2.98	(.624)	
시내버스 내부(의자, 손잡이 등)는 이용하기 안전하게 되어 있다	부산	117	2.76	2.86	2.428*
	김해	110	2.96	(.636)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안전하다	부산	111	2.64	2.71	1.308
마을버스 내부(의자, 손잡이 등)는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부산	117	2.64	2.82	4.518***
	김해	110	3.02	(.655)	
마을버스 내부(의자, 손잡이 등)는 이용하기 안전하게 되어 있다	부산	115	2.60	2.76	3.530***
	김해	110	2.92	(.693)	
마을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안전하다	부산	116	2.57	2.68	2.184*
버스 정류장에는 기다리는 동안 앉을 수 있는 의자 등이 있다	부산	119	2.79	2.85	1.152
	김해	110	2.91	(.783)	
버스 노선과 시간표 등의 안내표시가 보기 쉽게 되어 있다	부산	119	2.72	2.62	-2.002*
	김해	110	2.50	(.833)	
교통신호는 내가 운전할 때 잘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다	부산	110	2.60	2.55	-.855
	김해	110	2.50	(.867)	

b :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점
* p<.05 *** p<.001

③ 노인주택의 제공정도

노인주택의 제공정도는 <표 8>과 같이 경로당/노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노인용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노인공동생활가정, 2-3세대 가족용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제공정도 등 4가지 항목을 조사하여 알아보았다.

부산과 김해지역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만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을 뿐 노인주택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노인주택의 제공정도는 경로당/노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의 제공정도만이 2.71점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노인용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제공정도는 2.15점, 소규모 주택(노인공동생활가정)의 제공정도는 1.86점,

12) 본 연구에서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는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므로 중간값인 2.5점을 기준으로 2.0점-2.5점 이하는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2.5점-3.0점 이하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3.0점-3.5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2-3세대 가족용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제공정도는 1.87점으로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노인주택의 제공정도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노인용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제공되어 있는 정도만이 두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부산지역이 김해지역보다 제공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 거주주택의 유형에서 나타났듯이 농촌지역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공급이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2-3세대용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노인용 주택유형은 두 지역 모두 아직 공급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현재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여가시설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으나 노인을 배려하여 계획한 다양한 종류의 노인주택은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노인을 배려하여 계획한 노인주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8> 지역별 노인주택의 제공정도

노인용 공동주택의 제공정도	지역	N	M ^b	M (s.d.)	t값
우리 동네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을 위한 시설들이 있어서 노인이 되어도 살기에 적합하다	부산	119	2.63	2.71 (.857)	-1.421
	김해	110	2.79		
우리 동네에는 노인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다	부산	117	2.29	2.15 (.890)	2.465*
	김해	110	2.00		
우리 동네에는 10명 이내의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소규모 주택(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부산	118	1.92	1.86 (.769)	1.383
	김해	110	1.78		
우리 동네에는 2-3대가족을 위해 지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있다	부산	116	1.84	1.87 (.869)	-.545
	김해	110	1.90		

^b: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점
* p<.05

④ 노인 거주 주택 내부구조 및 설비의 노인친화도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부구조 및 설비의 노인친화도는 <표 9>와 같이 방의 배치와 종류 등 실내구조의 편리성, 화장실 위치의 적절성, 화장실 설비배치의 편리성, 냉난방설비와 접대공간 확보성의 5개 항목으로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노인 거주 주택 내부구조 및 설비의 노인친화도는 2.90점에서 3.05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실 위치의 적절성과 화장실 설비 배치의 노인친화도가 모두 3.05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실내구조의 편리성은 2.97점, 냉난방 설비의 적절성은 2.92점, 친구 등을 접대할 공간의 확보정도는 2.9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노인 거주 주택 내부구조 및 설비의 노인친화도는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5가지 항목 모두 김해지역이 부산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해지역 노인들이 현재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4.3년으로 길어 현재의 주택구조에 익숙해져서 긍정적이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산지역 노인들은 주택유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주택평수도 적고 따라서 실내구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김해지역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본다.

<표 9> 지역별 주택 내부구조 및 설비의 노인친화도

주택 내부의 노인친화도	지역	N	M ^b	M (s.d.)	t값
내가 사는 집의 실내구조(방의 배치와 종류)는 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부산	119	2.73	2.97 (.791)	-4.982***
	김해	110	3.23		
화장실의 위치는 내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부산	119	2.83	3.05 (.715)	-5.004***
	김해	110	3.28		
화장실 설비(세면대, 변기, 욕조)의 배치는 내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부산	119	2.79	3.05 (.709)	-6.184***
	김해	110	3.33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되어 있다	부산	119	2.57	2.92 (.847)	-7.084***
	김해	110	3.29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친구 등을 맞이할 공간이 있다	부산	117	2.58	2.90 (.792)	-6.940***
	김해	110	3.25		

^b: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점
*** p<.001

한편 주택 내부구조 및 화장실이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면 많은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거주 주택내부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표 10>과 같이 실내구조와 화장실의 위치, 크기, 설비배치의 편리성의 4개 항목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노인 거주 주택 내부구조 및 화장실의 휠체어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정도는 1.80점에서 1.87점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내부구조의 휠체어 사용 노인의 거주편리성은 1.87점, 화장실 위치의 휠체어 사용노인의 사용적절성은 1.83점, 화장실 설비배치의 편리성은 1.80점, 화장실 크기의 사용성은 1.82점으로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노인 거주 주택 내부구조 및 화장실의 휠체어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정도는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지역 모두 노인 거주 주택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정도는 동일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늘어날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배려는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0> 지역별 노인거주 주택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정도

주택내부의 휠체어사용자 배려정도	지역	N	M ^b	M (s.d.)	t값
내가 사는 집의 실내구조(방의 배치와 종류)는 휠체어사용 노인이 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부산	118	1.93	1.87 (.859)	1.066
	김해	110	1.81		
화장실의 위치는 휠체어 사용 노인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부산	118	1.88	1.83 (.844)	.875
	김해	110	1.78		
화장실 크기는 휠체어 사용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부산	118	1.90	1.82 (.823)	1.469
	김해	110	1.74		
화장실 설비(세면대, 변기, 욕조)의 배치는 휠체어 사용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부산	118	1.90	1.80 (.791)	1.876
	김해	110	1.70		

^b: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점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관련 근린생활시설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동네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지역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마을순환버스 등을 두어 정기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이들 시설들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로당이 도보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기능에 근린생활시설 중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경로당의 공간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비교적 멀리 위치해 있으면서 주간에만 이용하는 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경로당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일부 공간을 가변형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경로당의 활용도도 높이고 무엇보다 동네 노인들의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노인 거주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 중 보행도로와 교통의 2개 영역, 즉 주거지역 주변 보행도로의 바닥과 폭 및 벤치설치정도 등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의 이용편리성과 안전성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노인친화적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시지역 주거지역 주변 보행도로의 바닥과 폭 및 벤치의 설치정도는 노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내부도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과 함께 노인 이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 거주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 중 노인을 배려한 노인주택의 제공정도는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만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많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유형의 노인주택의 제공정도는 두 지역이 동일하게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도시나 농촌지역 모두 노인을 배려하여 계획된 노인주택유형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주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거주 동네환경의 노인친화도 중 주택내부 구조 및 설비영역의 경우 농촌지역 거주 노인이 도시지역 거주 노인보다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한 반면,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도시와 농촌 노인 모두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농촌 노인들의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평균 30년 이상으로 현재의 주택에 익숙하게 적응하여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는 노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거주기간이 긴 농촌의 경우는 기존 주택의 불편한 점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의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소규모의 노인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교적 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은 도시지역의 경우는 노인을 배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노인의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의 노인친화도를 조사하였다. 향후에는 노인의 관점에서의 조사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선자·김경혜,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2. 김수영·장수지·오찬옥·최성희, 고령친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표 개발, 한국노년학, 34,3, 2014
3. 김영혜·남효정·고주희,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4. 오찬옥·김수영·장수지, 노인의 접촉·만남을 지원해 주는 근린환경 디자인 지표개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3,2, 2014
5. 이민홍·이재정, 부산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부산복지개발원, 2011
6. 지은구·이원주·김민주,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개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 3, 경성대, 2013
7. UN,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Spain 2002
8.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007

[논문접수 : 2015. 02. 27]

[1차 심사 : 2015. 03. 16]

[게재확정 : 2015. 04. 10]